

노인 인권과 사회적 효의 기독교윤리적 의미

한승진

공주대학교 윤리교육과, 윤리교육 전공

esea@hanmail.net

- I. 머리말
- II.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노인문제
- III. 노인 인권의 기독교윤리적 의미
- IV. 노인의 기독교윤리적 의미
- V. 효의 실천으로서 기독교윤리적 의미
- VI. 맺음말

I. 머리말

종교는 사회 속에서 하나의 문화를 형성해나가고 있다. 그러므로 종교는 사회구원을 하나의 중심 주제로 삼는다.¹⁾ 종교는 오늘 우리 시대의 사회적 약자에게 향한 사랑을 실천해나가야 한다. 이 사회에서 종교가 관심 가질 사회적 약자로, 인권을 유린당하는 노인들의 현실에 대해 종교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기독교는 노인들을 교회당으로 끌어들이는 교인 증가의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이들이 겪어야 하는 외롭고 적적한 삶에 '도움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구제의 원리로서 효는 전통문화일 뿐만 아니라, 종교의 사회구원을 위한 중심 주제로 파악할 수 있다. 현대적 효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가족윤리에 그치지 않고, 사회와 국가로 확대되는 사회윤리적 의미를 포함한다. 효를 기독교의 개념으로 말하면 '사랑의 실천(agape)'으로, 신의 사랑과 돌봄이 누구에게나 미치는 보편성과 구체성에 근거한다.²⁾

이 논문은 노인 인권유린의 현실을 극복하고, 노인복지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정신문화적 토대 놓기의 중심 주제로서 기독교의 대사회적 기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노인의 정당한 삶의 질을 구현하기 위한 사회적 효로서 노인복지의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³⁾

1) 종교와 사회와의 관계를 논의함에 있어 크게 두 가지 시각이 있다. 하나는 '인간 안의 사회' 곧 인간이 사회를 만든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시각은 '사회 안의 인간'으로서 인간은 결국 공간과 시간을 구원할 수 없고 구체적인 역사와 사회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본다. 종교사회학자 피터 버거는 사회 속에서 인간을 봄과 동시에 인간 속에서 사회를 보려고 한다. Peter Berger, *The Sacred Canopy, Garden City* (New York: Doubleday, 1967), p. 109; 하비 콕스는 종교를 '문화적 세속화'의 개념으로 보고, 정치적 사회적 세속화의 필연적 부산물로 본다. Harvey Cox, *The Secular City: Secularization and Urbanization in Theological Perspective* (New York: The Macmillan Co, 1965), pp. 16-18.

2) 박원기, 『신학윤리와 사회과학』(대한기독교서회, 1998), 240쪽.

3) 이 논문에서는 사용하는 성서 번역본은 공동번역본으로 한다. 그 이유는 가톨릭과 개신교가 같이 번역하고 사용하기로 한 의의가 있고, 우리말 표기가 다른 번역본보다 우수하여 이해하기 쉽고, 원문에 충실한 번역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신명(神名)도 직접인용의 경우는 그대로 하고 모두 '신'으로 할 것이다. 편집부 저, 『공동번역 성서』(대한성서공회, 1977).

II.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노인문제

1. 고령화 사회의 현실

전 세계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문제가 전면적인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다.⁴⁾ 고령화 문제는 노동력을 지닌 생산 가능 인력의 수가 출생률 저하로 감소하는 데 비해, 부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층은 많아짐을 의미한다.⁵⁾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고령화율이 7%를 넘어서면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 속도가 빠른 나라이다.⁶⁾ 미국은 지난 1942년에 노인인구 비율 7%로 고령화 사회에, 2013년에 고령사회(14%), 2028년에 초고령사회(20%)에 진입하게 될 전망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해서 2019년에 고령사회, 2026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걸린 기간이 71년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약 15년에 불과할 정도로 인구 고령화는 견잡을 수 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선진국들은 서서히 고령화 현상이 진행되어 체계적인 실버 정책들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에 대응할 만한 이렇다 할 정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고령화 현상이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확대될 전망인데 이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인 어려움이다.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나타나는 경제적인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의 자녀나 친지들에게까지 영향이 미친다. 그에 따라 친구나 친지와와 관계, 여가활동, 정서와 심리적인 위축 등으로 사회격리 현상까지 보이기도 할 것이다. 경제적인 어려움의 주요 원인은 개인적인 은퇴 등의 요인도 있으나, 공적인 소득보장제도가 불충분함에 기인한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55세를

4) 인구 고령화에 대해 인구학자들은 지진(earthquake)과 같이 전 세계를 요동치게 만든다고 해서 '에이지퀘이크(agequake)'라는 신조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고령화 사회, 교회 노인복지 문제없나?」, 《한국기독교공보》, 2005년 2월 5일자.

5) 주선애, 「교회노인 교육과정」,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교육부 편, 『한국교회와 노인목회』(한국장로교출판사, 1995), 81쪽.

6) "고령화율(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38.2%로 세계 최고령 수준", 「2050년 대한민국 국민소득 8만 달러 ... 국토연구원 '그랜드 비전 2050' 보고서」, 《국민일보》, 2009년 9월 3일자.

전후로 은퇴를 하는데, 그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비자발적인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노인은 공적인 소득 보장이 정착되지 않은 실정에서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다.⁷⁾

둘째, 건강문제이다. 노인은 신체적인 노화로 인해 한두 가지 이상의 병에 시달리게 되지만 수입의 절감과 의료보호의 한계 등으로 근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없다. 국민건강 및 건강의식 행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령인구가 병에 걸려 있는 비율은 67%를 넘어서고 있다.

셋째, 사회적 역할이 줄어든다. 전통적인 대가족 형태의 가족구조가 산업화 사회 이후 핵가족화가 되면서 가정 내 노인들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다. 경제적인 기반이 약한 노인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이 밖에도 가족규모의 변화로 부양의식의 약화, 노령기의 여가선용 문제 등이 고령화 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회의 문제이다.

2. 노인의 지위 격하

오늘 우리의 현실은 노인을 존경하고 모시던 유교문화의 가치관 대신, 젊고 유능한 사람들을 선호하는 서양문화의 무비판적인 유입, 산업구조의 급속한 변화와 도시화·핵가족화 추세 등으로 노인들은 소외당하고 지위도 격하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구매력이 약한 노인의 문화는 청·장년층이나 어린이의 문화에 비해 현저히 무시당한다. 이와 같이 경제중심주의 산업사회는 구조적으로 노인들을 소외시킨다. 노인들은 소외, 질병과 빈곤을 경험하면서 '쓸모 없는 인생'이라는 심리적인 고통까지 안고 있다. 지금과 같은 저출산·고령화 사회가 지속되면 경제적 압박과 실업률의 증가 그리고 저축 감소로 인해 노인부양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노인들은 퇴직으로 인한 수입의 감소로 경제적 궁핍을 겪고, 잦은 질병에 의한 건강 악화에 직면해 있다.

사회기능주의적 측면에서 보면, 개인은 전체 사회의 안정과 질서유지를 위해 존재하고, 개인에 대한 물질적·정신적 보상은 그 전체 사회에 대한 공헌도에 따르게 된다. 급변하는 산업사회에서는 새로운 기술과

7) 최광현, 「노년기 갈등에 대한 체계론적 접근」, 『성령과 신학』, 22권(한세대학교 영산신학연구소, 2006), 232쪽.

정보와 지식을 이용하여 경제적 생산성이 높은 연령층의 사람들만이 가치를 인정받게 된다. 그에 따라, 노인들은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모적인 존재로 평가받게 된다. 그야말로 경제우선주의 담론이 지배하는 현실 속에서 생산 인구가 아닌 노인은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소비계층으로 여겨지게 된다.⁸⁾

노인문제는 급변하는 가정의 변화 속에서 심각하게 대두된다. 한 가정의 기둥이었던 노인이 어느새 권위를 잃고 가정 밖으로 밀려난다. 부모와 동거하지 않고 오붓한 부부의 행복을 누리려는 성향이 만연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생활고와 질병 등을 비판해 자살하는 노인이 늘고 있다. 뒤르켐은 자살이 개인적 행위로 보이지만 사실은 사회의 특정한 행태를 반영하는 것으로 본다. 그는 자살률에 대한 통계 분석을 통해 이러한 경향을 증명했다.⁹⁾ 노인 자살 연구자들은 노인 자살률 급증의 원인으로 사회경제적 지위변화에 따른 사회적 역할 축소와 자존감의 상실에 의한 것임을 지적한다.¹⁰⁾ 실제로 노인 자살률은 외환위기 때보다 두 배나 높으며 고령화 속도보다 증가 속도가 더 빨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자살예방협회의 자료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 자살률은 1998년 10만 명당 37.96명에서 2007년 73.61명으로 2배 가량 증가했다. 이러한 추세가 이어진다면 2018년에는 노인 자살률이 10만 명당 148.50명에 이를 것이고, 10년 뒤에는 노인 자살률이 또 2배나 늘어날 것이고,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이 기간 동안 1.35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¹¹⁾ 서화정은 고령화 사회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노인 10명 중 8명 이상이 자살을 고려해봤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¹²⁾

이와 같이 노인의 자살률이 급증하는 심각한 상황이지만 노인복지정책은 미약하다. 1960년대 이후 국가의 주된 관심이 경제성장 일변도로 흐르게 되면서, 노인복지는 다른 복지정책과 마찬가지로 관심을 끌지

8) 김성은, 「노년층의 사회 재통합을 위한 교회 노인교육」, 한국기독교교육학회 편, 『21세기 기독교교육의 과제와 전망』(한국장로교출판사, 1997), 312쪽.

9) Emile Durkheim, *Suicide: A sociological study* (Glencoe, IL: Free Press, 1975) 참고.

10) Lowy Louis, *Social Work with the Aging*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1979), pp. 299-301.; Harwood & Jacoby, "Suicidal Behaviour among the Elderly", *In the International Handbook of suicide and Attempted Suicide* (edited by Hawton, Keith, John Wiley & Sons, Ltd, 2000) 참고.

11) 「'황혼자살' 우울한 고공행진」, 《서울신문》, 2009년 1월 19일자.

12) 서화정, 「노인자살예방을 위한 사회사업 개입 전략」,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논문(2005), 20-35쪽.

못하였고, 노인문제는 집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전래의 ‘효친(孝親)’ 습속과 정서에 얽매어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이 적었다.

‘효친’ 윤리는 그 나름의 의미가 있었다. 가족 중심의 공동체가 삶의 단위가 되었던 시대에서 노인은 당연히 집안에서 보살펴야 할 존재였다. 그것은 효친 윤리에 바탕을 두어, 정당화되었던 삶의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러한 방식을 지켜갈 수 없게 되었다. 산업화 과정을 밟아오면서 농촌 중심의 대가족은 도시 중심의 소가족 단위로 바뀌고 삶 자체가 매우 복잡하게 분화되었다. 이러한 사회변동의 과정에서 노인은 점차 거주장스러운 ‘주변인’으로 밀려나기에 이른다. 노년기는 배우자의 죽음, 직업과 지위의 상실, 수입의 감소, 신체적 건강의 약화 등으로 인해 우울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기이다. 우리나라의 노인 우울증은 전체 노인의 15%로 추정되고 있으며, 우울증의 요인으로는 건강문제·자녀와의 갈등·경제적 어려움이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¹³⁾ 전래의 효친의식도 무의미하게 되고, 그렇다고 선진 복지 사회처럼 혜택을 받고 있는 것도 아닌, 그야말로 서글픈 상황에 노인이 던져져 있다. 오늘에 와서 노인은 품위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다.

III. 노인 인권의 기독교윤리적 의미

1. 노인 인권의 의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권리’라는 말은 쉽게 이해되는 개념이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의 개념이 노인에게 적용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후반의 일로, 이때에 와서야 전 세계적인 주목을 끌기 시작했다. UN의 노인원칙에 의하면, 노인의 권리는 독립, 참여, 보호, 자아실현, 존엄성이라는 다섯 가지 원칙에 기반한다. 이는 크게 두 가지 차원의 권리로 대별될 수 있다. 전자는 안전과 존엄성을 보장받으며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권리이고, 후자는 지속적으로 사회에 참여하여 자아실현을 할 수

13) 김형수, 「노인과 자살」, 『노인복지연구』 겨울호(2000), 25-45쪽. 우울증상과 관련하여, 가족의 결속력이 낮을수록 노년기의 우울증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태현·김동배·김미혜·이영진·김예순, 「노년기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연구(II)」, 『한국노년학』 19-1(1999), 61-81쪽.

있는 권리를 말한다. 후자가 주로 경제활동 참여, 정치적 의사표현 등의 형태로 추구되고 있다면, 전자는 노인에게 위협적인 각종 취약한 상황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는 사회적 책임과 관련되어 있다. 안전과 존엄성의 보장은 각종 학대로부터 노인을 보호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각종 학대는 다른 사람에 의한 신체적·정서적·성적·경제적 학대나 방임이 포함된다.

노인은 의존자·피부양자·병약자로 규정되어왔으며, 이러한 정의 속에는 노인의 수동성과 무능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노인은 지금까지 권리행사의 주체로 인식되기보다는 사회적 보호의 대상인 의존적인 존재로 이해되었다. 노인 스스로도 이러한 사회적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이러한 사회적 인식과 태도에서 중요한 변화가 나타났다. 그 변화의 일단은 노인을 지칭하는 용어로 나타난다.

언어는 그 언어가 담지하는 대상에 대한 사회적 가치, 위치, 태도를 반영한다. 오늘날 노인을 지칭하는 용어는 클라이언트(client) 이외에, 제3연령(third age)¹⁴⁾, 고령시민(aged citizen)¹⁵⁾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용어들은 모두 노인을 국가의 짐이자 해결되어야 할 사회적 부담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권리의 주체자로서 정당한 사회의 일원으로 통합시키는 노력을 반영한다. 이제는 노인을 위해서(for)가 아니라 노인과 함께(with)라는 파트너십을 강화시키고, 국가의 책임도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장해주는 데서 기본권적 자유권, 노인 스스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해주는 것으로 확대되고 있다.

자유권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 그 가치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¹⁶⁾ 노인의

14) 이 용어는 정해진 봉급생활자가 일반화되면서 이들이 퇴직 후 연금 등으로 생활하면서 봉급생활 때와 비슷한 특징을 보이면서 기존 노인 특성과는 다름에 주목하여 쓰이게 된 용어이다.

15) 고령시민이란 노인을, 시민이지만 단지 연령이 많은 '시민'으로 이해함으로써 노인을 2등 시민 또는 일반 시민과 '다른' 시민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거부한다. 노인은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의 동정과 도움에 의존하는 약자이지 권리의 주체인 일반 시민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일반 시민과의 구분을 없애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16) 인권의 첫 번째 기본 요소가 바로 '자유권'이다. 자유는 인간의 생득적이며 자연적 본성이므로 개인은 물론 국가도 이를 임의로 처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인권으로서 자유권은 의무라기보다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이다. 그렇다고 개인의 자유가 한정 없이 향유될 수 있다는 말은 아니다. 한 사람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할 때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나의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을 때만 허락된다는 점에서 자유의 조건은 평등이다. 김형민, 「후버의 신학적 인권론」, 손규태 교수 정년퇴임

자기결정권은 UN이 각국의 정부에 권고하는 원칙에도 잘 나타나고 있다. 노인은 자유로운 인권보장을 위해 사회적·법적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 노인은 그들의 개인적인 생활에 대한 완전한 존중을 보장받아야 하며, 그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장받고, 삶의 질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모든 노인이 이러한 권리규약이나 헌법에 규정된 대로 존엄한 주체적 존재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치매노인이나 정신장애 노인 등 병약한 노인의 경우 의존성이 불가피하며, 기본권의 향유에 있어 사실상 취약한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노인들의 기본적 권리는 결국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실현될 수밖에 없다. 또한 오늘의 현실은 노인들이 가정에서 자녀에게 학대를 당하면서도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인 경우가 늘고 있고, 발언권도 약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의 위상은 실추되고, 극심한 정체성의 혼란에 따른 우울증으로 자살로 치닫는 경우도 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노인의 정당한 인권문제에 주목하지 않는다. 자라나는 세대인 젊은층과 여성 등 발언권을 강하게 표출하는 대상에 대한 인권에는 관심이 집중되지만, 소비의 대상으로만 인식되는 노인의 인권에는 둔감한 실정이다.

2. 기독교윤리적 인권

기독교 인간관은 인간의 존엄성을 전제로 하는 ‘천부인권(天賦人權)’이다. 성서는 인간이 신의 모습을 본떠서 창조되었다¹⁷⁾고 선언한다. 이 선언은 인류 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최고의 인권선언이다.¹⁸⁾ 모든 종교는 신과 인간 사이의 차이를 전제하고 이를 강조하는 교리를 가진다. 기독교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성서의 이러한 선언은, 신과

기념논문집 발간위원회 엮음, 『공공성의 윤리와 평화』(한국신학연구소, 2005), 259쪽.

17) 「창세기」 1장 27절, 5장 1절, 9장 6절.

18) 신이 인간을 자기의 모습으로 지었다는 것은 인권사상의 발전에 큰 공헌을 하였다. 이에 대해 후버는 성서가 증언하는 신의 모습론으로 인권의 신학적인 의미를 제시한다. 그는 ‘모든 인간의 평등함과 존엄함’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찾았다. 그러나 그는 신의 모습을 인간의 내재적 성격으로 보는 스콜라 철학적 해석을 거부하고, 대신 개혁 교회의 전통에 따라 신과의 ‘관계’로 파악하였다. 신의 모습을 관계 개념으로 본다는 것은, 신의 모습은 인간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상실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김형민, 앞의 책, 255쪽.

인간 사이의 본질적 차이만 부각시키는 다른 종교적 주장과는 달리 인간의 존엄성이 신적 위상을 가지고 있음을 주목하고 있다. 신과 인간은 다르다. 그러나 인간의 본질에는 신의 모습 즉, 신의 이미지가 담겨 있다. 따라서 인간을 모독하고 짓밟고 차별하는 것은 신을 모독하고 짓밟고 차별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바로 이러한 인간존중이 성서의 기본 정신을 이룬다.

유대인들은 바벨론 제국에서 포로생활을 할 때도 이 성서의 선언을 통해서 자신들의 존엄성을 깨우쳤다. 그들은 최고의 인격적 자부심을 꺾지 않고 고난의 세월을 이겨내는 힘과 용기를 길러왔다. 기독교의 인간관은 신 앞에서 모든 인간의 평등과 인간 상호관계의 존엄을 지켜내는 자세를 촉구한다. 기독교인은 차별에 저항하고 차별로 인해 희생당하는 사람들 편에 서며, 차별을 폐지하는 운동을 펼쳐나가야 한다. 차별의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오히려 차별로 위계질서를 만들어내거나 이를 통해 자신의 권력이나 기득권을 만들어내는 것은 반기독교적 행위이고 기독교의 본질에 대적하는 것이다.

기독교윤리의 전거(典據)로서 성서를 살펴보면, 정당하게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가 해방되는 사회를 지향함을 알 수 있다. 성서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그들의 인권을 보장해야 하는 종교적 당위의 근거를 제공하면서 관심 갖고 돌볼 것을 명령한다. 성서가 말하는 신은 고아, 과부, 가난한 사람, 떠돌이(외국인 체류자), 사회구조로 인해 억압당하는 사람, 장애인, 교도소에 갇힌 사람들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이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책임져준다.¹⁹⁾ 또한 억압당하는 사람을 공정하게 판단하며,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교도소에 갇힌 사람을 해방하며, 시각장애인을 고치고, 불쌍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며, 떠돌이다니는 사람을 보호하며, 고아와 과부를 붙들어준다.²⁰⁾ 신은 반드시 지켜야 할 율법으로 떠돌이나 고아의 재판을 억울하게 하지 말며, 가난한 과부가 옷을 빼앗지 말 것을 명령한다.²¹⁾ 신은 섬세하게 약자들의 처지를 고려하여,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묶음을 밭에서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떠돌이와 과부와 고아를 위해 버려둘 것을

19) 「신명기」 10장 18-19절.

20) 「시편」 146편 6-9절.

21) 「신명기」 24장 17절.

명령한다.²²⁾ 신은 이스라엘이 국가를 형성하는 단계부터 분명하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것을 명령한다. 가난한 약자들을 위해 땅의 곡식을 추수할 때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고 명령한다.²³⁾ 이는 신이 인간에게 탐욕과 인색한 자세를 버리고, 관대한 나눔을 통해 주변의 가난한 사람과 떠돌아다니는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말하는 것이다. 신은 사적 소유에 집착하여 마지막 하나까지 철저히 챙기려는 악착스러운 인간의 마음을 경계한다. 비록 그것이 합법적 소유라 할지라도 소유권을 다 주장하지 말고, 주위의 연약한 사람들과 나누라고 명령함으로써, 소유가 모두 자신의 것이 아니며, 나눔이 전제된 양이 있어야 함을 말하고, 이 나눔을 통해 사회적 약자가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받아야 함을 일깨워준 것이다.

신은 비인격적인 근무조건 아래에서 노동하는 피고용인이 품삯 지급받는 날을 기다리는 심정까지 헤아리는 섬세한 관심을 보여준다.²⁴⁾ 이것은 별다른 이유 없이 임금 지불을 늦추는 것이 얼마나 못할 것인가를 지적하는 말이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신의 섬세한 관심은 끝이 없다. 그는 채권자들이 채무자에게 채무의 상황을 독촉하더라도 그의 생존을 위협하는 정도까지 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한다.²⁵⁾ 그러므로 사회적 약자를 괴롭히거나 그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자들은 신의 진노를 초래하게 된다. 신은 너희가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여, 그들이 자신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면 반드시 그 억울한 사연을 듣고, 맹렬히 진노하여 칼로 너희를 죽여 너희 아내를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게 할 것이라고 경고한다.²⁶⁾ 그래서 성서는 신을 가리켜,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재판장”²⁷⁾, “고아를 돕는 자”²⁸⁾라고 말한다.

예수도 사회적 약자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동정을 베푼다. 그는 하나밖에 없는 오빠를 잃은 두 자매를 보고 울었다.²⁹⁾ 남편도 없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마저 잃은 과부를 보고 위로하면서, 그 아들을 살려주

22) 「신명기」 24장 19절.

23) 「레위기」 19장 9-10절; 「레위기」 23장 22절; 「신명기」 24장 19-21절.

24) 「신명기」 24장 14-15절.

25) 「출애굽기」 22장 25-27절.

26) 「출애굽기」 22장 22-24절.

27) 「시편」 68편 5절.

28) 「시편」 10편 14절.

29) 「요한의 복음서」 11장 35절.

었다.³⁰⁾ 그는 굶주린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그들을 다 배부르게 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다.³¹⁾ 또한 가난한 무리를 목자 잃은 양 같다고 애처롭게 바라본다.³²⁾ 예언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게 회개의 구체적 목록을 제시할 때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이 바로 학대받는 사람을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돌보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해주라는 것이다.³³⁾ 예언자 예레미야는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신을 아는 것과 같다고 말한다.³⁴⁾ 이어서 그는 신의 정의는 탈취당한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떠돌이와 고아와 과부를 압박하거나 학대하지 않는 것이며, 죄 없는 사람들이 희생당하지 말아야 함을 말한다.³⁵⁾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보호는 구약성서 예언서뿐만 아니라 「시편」에서도 핵심적 주제로 강조된다. 신은 불의한 권력자들을 향해 질책한다.³⁶⁾ 「잠언」은 남편이 없는 과부를 알보고 그녀의 밭에 인접한 땅의 주인이 그 경계를 표시하는 돌을 옮겨 자기 땅을 넓히는 일을 하지 말 것과 외로운 자식의 밭을 침범하지 말 것을 명령한다.³⁷⁾ 그리고 신은 말을 하지 못하는 장애인과 외로운 사람이 재판관을 받을 때, 이들을 위해 입을 열라고 명령한다.³⁸⁾ 성서에는 신이 사회적인 약자의 생존권과 권리를 옹호하는 구절이 많다. 진정한 의미의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어려움 속에서 돌아보는 것이다.³⁹⁾ 이는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관심과 보호가 바로 경건의 진정성을 측정하는 잣대가 된다는 의미이다. 예수가 죽은 후 그 운동을 펼쳐나가는 사도들이 바오로의 진정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당부하는 것도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라는 것이었다.⁴⁰⁾

30) 「루가의 복음서」 7장 13-15절.

31) 「마르코의 복음서」 7장 38-44절.

32) 「마르코의 복음서」 7장 34절.

33) 「이사야」 1장 17절.

34) 「예레미야」 22장 16절.

35) 「예레미야」 22장 3절, 7장 6절.

36) 「시편」 82편 1-4절.

37) 「잠언」 23장 10절.

38) 「잠언」 31장 8절.

39) 「야고보의 편지」 1장 27절.

40) 「갈라디아인들에게 보낸 편지」 2장 10절.

IV. 노인의 기독교윤리적 의미

1. 사회적 약자인 노인

벤엘에 사는 한 노인 예언자는 젊은 예언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으며⁴¹⁾, 노아와 롯은 술에 취해 수치를 당하였다.⁴²⁾ 노인의 가장 큰 특징은 역시 신체적으로 쇠약해지며⁴³⁾ 병약해지는 현상이다. 쇠약한 노인이 이용당하고 학대받는 예로 눈먼 아버지를 속인 야곱, 불량한 아들 때문에 고통을 당한 제사장 엘리 등이 나온다. 아이를 낳지 못하고 노동력이 저하되며 수입이 감소되고 배우자까지 잃어버린 노인들은⁴⁴⁾ 생계의 위협을 받았으며⁴⁵⁾ 쉽게 착취당할 수도 있었다.⁴⁶⁾

성서는 노인이 존경받아야 하지만 동시에 쉽게 이용당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노인의 시기가 생의 한 부분으로 소중히 여겨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인간에게 주신 신의 복은 노인에게도 미치며 삶의 의미와 보람을 누릴 수 있음을, 오히려 노인의 시기가 신의 모습을 닮은 인간의 성숙한 면모를 보여주어야 하는 결실의 시기임을 말한다.⁴⁷⁾

성서에서 노인은 두 가지 현상으로 분석된다. 하나는 비판적인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슬픔 속에서도 긍정적인 모습을 회복하고 희망을 가꾸고 유지하는 측면이다. 비판적인 측면은 신체적으로 눈이 어두워지고 몸의 기능이 저하되는 것이다. 육체적 장애와 성욕이 감퇴하는 현상이다. 흰머리가 나고 힘이 쇠약해지는 현상은 노인을 매우 우울하게 만든다.⁴⁸⁾

41) 「열왕기상」 13장 1-32절.

42) 「창세기」 9장과 19장.

43) 「전도서」 12장 3-7절.

44) 남편이나 아내를 사별한 독신자들이 많은 것은 노년에 나타나는 특수한 현상 가운데 하나이다. 홀로 사는 것은 외로움과 소외감 등 심리적인 어려움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수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성서에는 과부를 보호하라는 말씀이 자주 나온다(「신명기」 10장 18절, 14장 29절, 24장 17절 등). 성서 시대의 과부는 고아와 나그네와 더불어 가장 연약하며 착취당하고 이용당하기 쉬운 사람들이었다. 구약에서 말하는 과부(예: 롯기의 나오미, 「룻기」 1장 20-21절)는 오늘날의 과부와는 다르며, 늙고 생활 대책이 없는 독신자들이다. 신약시대에는 60세가 넘는 과부만을 과부 명부에 올리는 경우도 볼 수 있다(「디모테오에게 보낸 첫째 편지」 5장 9절); 소기천, 「성경이 말하는 아름다운 노년」, 『교육목회』, 제20호, 봄호(2004), 22쪽.

45) 「룻기」 1장 20-21절.

46) 「마르코의 복음서」 7장 5-13절.

47) H. W. Wolff 저, 문희석 역, 『구약성서의 인간학』(분도출판사, 1976), 210-223쪽 참고.

노인의 시기에 불쌍히 여김을 얻지 못하고 하찮게 여겨져 소외를 당하기도 한다. 「시편」 71편에서 어느 노인은 쇠약해지는 힘과 고달팠던 수고를 열거하며 탄식하고 있다. 이 노인은 버림받는 것과 고독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연령이 높아감에 따라서 육체의 힘과 사고능력과 생활력이 저하되는 것을 진지하게 염려하고 있다.⁴⁹⁾ 영적인 분별력이 쇠하고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완고함을 보이는 노인도 존재한다.⁵⁰⁾

80세 고령의 바실래 노인의 고백이 나온다. 그는 자신의 쇠약해지는 한계를 인식하고 다른 사람의 짐이 되지 않기를 원하며 자신의 마지막을 정리하겠다고 말한다.⁵¹⁾ 노년의 때는 해·달·별이 어둡게 되는 것처럼 어둠의 그늘이 깃들며, 춥고 쓸쓸한 겨울, 구름이 지평선을 덮는 것에 비유된다. 임박한 죽음은 폭풍우가 모인 것으로 표현된다. 노쇠한 신체는 빈약한 일꾼들을 데리고 살아가려는 험 집에 비유된다. 팔과 손, 발과 다리, 치아와 눈이 다 약해지는 쓸쓸하고 비참한 노후를 보여준다. 노인에게는 음식의 맛도 식욕증진의 효력도 없다. 죽음 이후에도 돈을 받고 올려주는 직업 올음꾼들의 초상으로 대치되는 현상을 그리고 있다. 노인의 시기는 그야말로 늙고 병들고 외로움에 직면하는 시기이다.⁵²⁾

당대의 의인 노아가 홍수 후에 포도 농사를 잘하고 나서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별거벗은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인 사건도 있다.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낸 둘째 아들 함은 저주를 받게 된다. 늙은 아버의 실수가 자녀에게 저주가 된 것이다.⁵³⁾ 이것은 물질적인 안정은 있었지만 정신적 영적 황폐화와 아노미 현상이 빚어낸 노인들의 실제 현상의 성서적 증거이다.⁵⁴⁾ 노인들의 육체적인 노화현상은 질병과 활동의 제약을 가져온다. 치매 상태와 같은 질환은 본인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치명적인 자존감의 상실을 안겨준다. 심리적인 불안과 공허감, 낮은 자존감으로 위축되게 만든다.

48) 「창세기」 27장 1절, 48장 10절; 「사무엘상」 3장 2절, 4장 15절; 「전도서」 12장 2-7절; 「열왕기상」 1장 1절과 15절; 「사무엘상」 12장 2절; 「시편」 71편 9절.

49) 앞의 책, 210-223쪽 참고.

50) 「역대하」 36장 17절; 「이사야」 3장 5절.

51) 「사무엘하」 19장 32-38절.

52) Henry P. Smith, *International Critical Commentary: Samuel* (Edinburgh: T.&T. Clack, 1969), p. 366.

53) 「창세기」 9장 20-27절.

54) 제자원 편, 『창세기, 그랜드 종합주석 1』(성서교재간행사, 1991), 433쪽.

2. 노인과 노화에 대한 긍정적 근거

기독교윤리의 전거(典據)로서 성서는 노인과 노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한다. 성서에 나오는 노인들의 긍정적인 삶의 모습도 있다. 모세는 늙도록 기력이 쇠하지 않았으며, 사라와 엘리사벳은 늙어서 임신, 출산도 하였다. 주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보기까지 생존한 시므온과 안나가 있으며 공경을 받은 노인도 있었다. 게난, 노아, 데라, 라멕, 마할랄렐, 모세, 므두셀라, 사라, 셋, 아담, 아론, 아브라함, 야곱, 야렛, 에녹, 여호수아, 요셉, 이삭 등 여러 사람은 백세 이상 살아서 신에게 영광을 돌린 사람들이다.

또한 아름다운 노후를 맞이한 경우도 많다. 「루가의 복음서」 2장의 시므온과 안나는 그리스도를 보기까지 생존하리라는 의지대로 살아서 복된 말씀을 선언하였다. 모세는 백이십 세의 노쇠한 연령에도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사라는 구십 세에 임신이 가능하여 아이를 출산하였으며, 엘리사벳은 노년에 세례 요한을 출생하였다.⁵⁵⁾ 성령으로 충만한 노인들은 자신도 희망에 살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축복을 예언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 평생을 스스로 경건하게 단련하고 교육하는 삶은 고귀하게 유지될 수 있다.

‘장수한다’는 것은 신의 특별한 은총으로 여겨졌다. 백발은 인생의 면류관으로 존경을 받았다.⁵⁶⁾ 백발은 지혜를 상징하고 노인은 가르치며 지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주로 노인들로 구성되는 마을의 장로들은 지도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었다. 앞으로 예측되는 미래가 지식정보화 사회라고 하지만 학자들은 지식과 정보 위에 지혜가 있다고 말한다. 정보와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들을 사회에 유익하게 쓸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지혜가 있어야 사회가 발전한다. 바로 그 지혜를 노인들이 가지고 있기에,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도 노인들의 경륜은 결코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⁵⁷⁾ 신약성서는 장로를 배나 존경할 자라고 말한다. 그래서 성서는 노인을 존경하는 것이 곧 사회의 기본 체제를 존중하는 것이요, 나아가 모든 질서를 운영하는 신을 경외하는 것으로 연결시키고 있다.

55) 「루가의 복음서」 1장 36절.

56) 「잠언」 16장 31절.

57) 「황금세대」 영향력변화 집중분석, 《한국경제신문》, 1999년 9월 27일자.

노인을 돌보면 우리 사회에 기쁨이 넘치게 된다.⁵⁸⁾ 성서는 노인을 존경하는 것이 곧 사회의 기본 체제를 존중하는 것이요, 나아가 모든 질서를 운영하는 신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한다.⁵⁹⁾

3. 노년기의 자기갱신

오늘의 시대는 평생교육을 강조한다.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이들은 더욱 재교육이 필요하다. 성서는 신을 대신하여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바로 경험이 많고 지혜로운 노인임을 말한다. 그러나 백발이 성성하다고 해서 모두가 지혜로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⁶⁰⁾ 노인은 스스로 자신의 몸을 관리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며 자연적으로 쇠약해져가는 몸의 장애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 비현실적인 과도한 욕심을 버리고 노년의 상황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⁶¹⁾

직장에서 은퇴를 한다고 해서 인간의 노동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개인의 이기적인 욕심에서 벗어나 사회를 위해 더 보람된 일을 할 수도 있다. 성서 시대의 노인들 가운데는 마을을 지도하는 장로의 임무를 수행하는 노인도 있었고 지혜로운 충고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⁶²⁾ 레위인과 제사장은 은퇴를 하고서도 성전을 경비하는 일을 평생 하였고, 기도하던 노인들이⁶³⁾ 아기 예수를 맞이하고 찬양드리는 모습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노인들이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젊은 세대들을 지도하고 상담하는 일은 세대간 긴장완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고 노인이 존경받을 수 있는 길도 열 수 있다.

노년의 시기는 신의 모습을 닮은 인간의 성숙한 면모를 보여주어야 하는 결실의 시기이다. 그래서 노인이 보호를 받고 도움을 받기보다는 노인 스스로가 지녀야 할 이러한 긍지와 보람이 필요하다. 노인의 긍정적인 삶에 대해서 권면하는 구절들도 있다.⁶⁴⁾ 그러므로 나이가 많다는

58) 「에레미야」 31장 13절.

59) 「레위기」 19장 32절.

60) 「욥기」 32장 9절.

61) 「사무엘하」 19장 33-37절.

62) 전도서의 늙은 전도자, 「열왕기상」 12장 6-7절에 나오는 르호보암 왕을 충고한 노인들.

63) 「루가의 복음서」 2장 25-38절에 나오는 시몬과 안나.

이유만으로 사람이 불행하다거나 억눌리는 소외의 대상이 되었다고 봐서는 안 된다. 생물학적인 연한의 장단이 행복의 유일조건일 수는 없다. 성서는 노후의 영적인 가치창조를 암시하고 있다. 솔로몬을 잘 보좌하던 노인들에 대해서 말한다.⁶⁵⁾ 이는 노인들이 왕을 잘 보좌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르호보암이 노인들의 교도를 따르지 않고 소년들의 충고를 따른 것을 두고 성서는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였다. 이것은 소년들의 기백보다 노인들의 노련함을 더 존중하는 성서기자의 입장을 대변한다.⁶⁶⁾ 이것은 노인들의 경험과 지혜가 강조되는 것을 볼 때, 효에 대한 강조이거나 젊은 세대에 대한 견제로, 노인의 따돌림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가르침이기도 하다.

성서는 인간의 노화에 대해 당연한 경험의 한 부분이라는 것, 삶의 단계를 통해 변화 과정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려면 신의 창조질서를 수락하고 참여해야 한다는 것, 노년기의 적응은 영적 성숙과 자기 자신의 유한성을 수락하는 경험에 근거한 희망의 개발을 포함해야 함을 말한다.⁶⁷⁾ 그러므로 노화를 타락의 부정적인 결과로 볼 수 없다. 인간이 “신의 모습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것은 성서의 중심 사상이다. 노화도 인간에 대한 신의 인간 창조의 의도적인 계획이다.⁶⁸⁾ 인간이 노화과정을 통과하는 동안 그 존엄성과 신성이 감소될 수 없다.⁶⁹⁾ 그러므로 노화를 인간 경험이나 생존의 한 부분에 제한되는 것이 아닌, 전인적인 상호관계에서 다루어야 한다. 이에 대해 마틴 하이네켄은, 지금까지 신학이 노인에 대한 특별한 신학이 없고, 단지 신학을 위한 성서적 혹은 신앙고백적인 것이 노인문제에 적용되는 정도임을 지적하면서 노인과 노화 문제가 기독교신학의 중심 주제로 연구되어야 함을 역설하였다.⁷⁰⁾ 인간성 가운데 창조된 신의 모습에 대한 성서적, 윤리학적으로 중요한 교훈은 각 개인이 신의 창조물로서 수락되고 존중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64) 「시편」 71편 17-18절; 「말라기」 4장 6절.

65) 「열왕기상」 12장 6-8절.

66) 「잠언」 12장 12절.

67) 장대숙, 『노인학의 이론과 적용』(한국장로교출판사, 1998), 23쪽.

68) J. G. Harris, “Old Age”, *The Anchor Bible Dictionary*, vol. 5 (New York: Doubleday, 1992), pp. 10-12.

69) *Ibi*, p. 23.

70) Martin J. Heineken, “Christian Theology and Aging: Basic Affirmations”, W. M. Clements, (ed.) *Ministry with the Aging* (London: The Haworth Press, 1989), p. 76.

마비스는, 노인의 지혜와 권위 그리고 사회적 위치 상승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육체적, 정신적 쇠약과 사회적 편견 등과 같은 부정적 측면이 함께 함을 일깨워주면서 노년기가 축복임과 동시에 쇠약의 시기임을 일깨워준다.⁷¹⁾ 이기양은, 노화는 상실과 획득의 두 요소를 포함한다고 본다. 육체는 쇠약해지고 일시적이며 유한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 획득은 영원하고 불변하며 성숙되어지는 것으로 거룩함에 참여하는 활동적 지식과 잠재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부분 영적인 요소를 포함한다. 그러므로 물리적 몸이 노화와 함께 쇠퇴하는 동안 궁극적인 실재에 대한 갈망과 종교성은 새로운 삶 안에서 발전한다.⁷²⁾ 이것은 신의 모습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노화과정을 통과하는 동안 그 존엄성과 신성이 감퇴될 수 없다는 말이다. 이와 같이 성서에서 말하는 노화과정은 개발되고 성장하고 변화하는 것이며, 이것은 신이 창조한 모든 우주의 질서이다.⁷³⁾

현대 사회의 효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가족윤리에서 그치지 않고, 사회와 국가로 확대되는 사회윤리적 의미를 말한다. 효를 기독교의 개념으로 말하면 ‘사랑의 실천(agape)’일 것이다. 노인 인권유린의 현실을 극복하는 정신문화적 토대 놓기의 중심 주제로서 기독교 사회윤리적 관점의 주지로 효의 확장으로서 노인부양의 기독교윤리적 의미와 가치를 제시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71) Paul. B. Maves, "Aging, Religion, and the church", Clark Tibbets, (ed.) *Handbook of Social Gerontolog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0), p. 711.

72) 이기양, 「노인의 긍정적 이미지와 노인신학의 발전방향」, 『신앙과 학문』, 통권 24, 7권 2호(기독교학문연구회, 2002) 참고.

73) 브라우닝은 넓은 의미에서 노화를 생명의 시작으로부터 끝까지의 이동과정으로 본다. D. S. Browning, *Preface to a Practical Theology of Aging* (New York: Human Sciences Press, 1975), p. 154.

V. 효의 실천으로서 기독교윤리적 의미

1. 노인문제 극복 근거로서 효

노인은 노인이 되기 전까지는 사회에서 생산력을 가진 세대로 활동하다가 노인의 기준이 되는 60-65세의 연령에 이르러서 은퇴함으로써 경제적·신체적으로 의존적인 인구가 된다. 핵가족화에 따른 가족구조의 변화와 그간 노인들이 사회에 공헌해온 점 등의 고려로 이들에 대한 복지적인 책임을 사회가 져야 한다는 공적 책임론이 강하게 대두되었다. 그러나 복지 욕구는 커져가는 반면 자원은 한정되어 있어 공식적 지지체계의 예산은 삭감을 경험해 왔다. 특히 IMF와 같은 위기를 맞고 있는 우리 사회의 경우 심각한 사회복지에 관한 예산 삭감이 예상된다. 오늘의 현실을 돌아보면 지금 세계적인 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책과 해결이 현대사회의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우리 사회의 고령화는 노인 부양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황경식은 칸트 이후 서양 윤리가 보편적 도덕행위의 중심적 잣대를 세운 공헌이 있으나, 부모-자녀 관계를 주목하지 않음으로써 사랑·보살핌·존경의 역동성을 간과해온 것과 서구 가정이 지나치게 부부중심 일변도임을 지적한다. 이에 보완 윤리로서 상호호혜성과 보은지정이 가능한 실천윤리로서 효의 윤리를 인간관계의 준거지점으로 제시한다.⁷⁴⁾

오늘의 노인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실마리를 효라는 정신적 가치의 재정립과 그것을 통한 새로운 가치창출에서 찾고자 하는 관심과 열의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 민족공동체를 유지시켜온 정신적 기반인 '효(孝)'를 연구·교육·선양하여, 실천규범으로써 효를 현대사회의 행동지표로 다시 일으켜 세우고 국내부터 활성화시킨 후에 세계적인 효 실천운동으로 확산시키고자 하는 노력으로 지난 2007년 7월 2일에는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각 사회단체와 종교에서도 효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그것은 효의 정신적 가치가 바로 실질적인 효행실천운동의 근본적인 지도 원리이기 때문이다.

74) 황경식, 「충효사상의 현대적 의미: 효도의 의무와 그 정당근거」, 『철학사상』, 12호(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01. 6), 36-37쪽.

세상이 복잡하고 어려워질수록 노인공경 문화는 우리의 정신 속에 깊이 새겨져 있어야 하고 실천으로 나타나야 한다. 효 문화의 전통이 다시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를 내린다면, 노인공경은 물론이고 인간존중의 풍토도 폭넓게 조성될 것이다. 효는 전통문화 계승은 물론이고, 작게는 가정윤리로부터 크게는 사회와 국가가 영위하는 모든 영역으로 확대가 가능한 윤리적 덕목이고, 우리나라의 다종교·다문화 사회를 엮을 수 있는 중심사상이다. 이러한 효가 가정을 넘어 사회로 확대되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노인공경이다. 현대사회의 노인 인권의 문제해결은 사적 부양을 넘어 국가 중심의 공적 부양의 방안이 필요하다.⁷⁵⁾

2. 성서적 효의 적용

십계명 중 제5계명은 “너희는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야훼께서 주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⁷⁶⁾라고 전하고 있다. 십계명 중 1-4계명은 신에 대한 공경의 가르침이고, 5-10계명은 인간에 대한 가르침이다. 인류 공동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가꾸어나가기 위한 가르침 중 첫째가 부모공경이다. 여기서 주목해볼 점은 5계명의 의의이다. 5계명은 신에 대한 공경의 계명과 인간에 대한 가르침의 징검다리 위에 위치한다. 그러므로 부모공경을 잘하는 사람이 신에 대한 공경과 인간관계도 잘 맺을 수 있다. 부모공경을 못하는 사람은 신에 대한 공경과 인간관계도 못한다. 또한 5계명은 인간관계의 첫 번째로, 뒤에 나오는 6-10계명을 이끈다. 즉 부모공경을 잘하는 사람이 6-10계명을 잘 지켜나갈 수 있다. 그러므로 부모공경을 하지 않는 인간은 6계명의 살인, 7계명의 간음, 8계명의 도적질, 9계명의 거짓증거, 10계명의 남의 것 탐내는 것을 다 지켜도 소용이 없다. 더 깊이 강조하면 살인자, 간음자, 도적질한 자보다 불효자가 더 나쁘다. 왜냐하면 열 가지 계명은 상위 계명일수록

75) 이에 대해 이효범은 국가 차원의 실제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국가는 노인복지 예산을 과감히 늘려야 한다. 둘째, 빈곤 노인들에게 무각출 노령연금제도 실시 혹은 노령수당 확대 실시, 셋째, 경로연금제도와 고령근로자 고용 장려금 제도 확대 실시, 넷째, 노인 주택지원정책 강화, 다섯째, 양로시설이나 노인시설 운영 등의 개선, 여섯째, 노인일자리 창출 및 취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효범, 『새로운 효』(공주대학교출판부, 2004), 315-319쪽.

76) 「출애굽기」 20장 12절; 「신명기」 5장 13절.

중요한 것이므로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증거, 남의 것 탐내는 것을 안하는 것보다 부모공경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십계명에 나오는 부모공경은 이미 성인이 된 자녀들에게 주는 교훈이다. 즉 노약자가 된 부모를 잘 공경하고 모시라는 가르침이다.⁷⁷⁾ 옛날 우리 사회에서도 '고려장'이라는 악습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서도 그와 비슷한 것이 있었다. 매일 매일 힘겨운 여정 속에 살아가는 광야 생활에서 노약자들은 짐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늙고 병든 부모를 몰래 내다버리는 일이 종종 생겼다. 이러한 환경에서 십계명은 부모공경에 대해 강조한다.⁷⁸⁾

구약성서에서 효 사상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는 곳은 「잠언」이다. 기독교의 효 사상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서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적 이해가 필요하다. 성서에 나타난 구절에 대한 직접적 해석은 기독교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의미를 오해할 소지가 있다. 즉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구절은 신을 섬기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유교의 효와 기독교의 효는 부모공경의 규범적 측면에서는 일치한다고 볼 수 있으나, 효의 개념 설정이 동일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인간 이해의 측면에서 유교는 ‘부모로부터 받은 몸’⁷⁹⁾으로 이해하지만, 기독교는 ‘너의 몸은 신으로부터 받은 것’⁸⁰⁾이라고 하여 부모를 넘어 궁극적인 존재로 상정한다. 그러므로 효의 대상도 부모에 그치지 않고 신까지 확대된다.

그렇기 때문에 신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 이웃사랑, 자연보호 등으로 윤리적 폭이 확대된다. 이에 대해 김경재는 기독교가 말하는 부성의 근원을 신적 부성의 원천으로 말하면서, 동양철학의 효 사상이 자연신학적 범주 내에서 말해지는 것과 달리 기독교는 계시의 빛, 신의 빛에서 인식하고 고백한다는 점에서 다름을 말한다.⁸¹⁾ 신 앞에서는 부모-자식관

77) 구약의 십계명과 신약의 부모공경은 그 맥을 같이 한다. 그러나 주의깊게 살펴보면, 차이점이 있다. 십계명에 나오는 부모공경은 이미 성인이 된 자녀들에게 주는 교훈으로, 노약자가 된 부모를 잘 공경하고 모시라는 가르침이다. 그러나 신약성서 「에페소인들에게 보낸 편지」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는 교훈은 성장기에 있는 어린 자녀에게 주는 교훈으로 그 대상이 다르다.

78) 「출애굽기」 21장 15절, 17절; 「레위기」 20장 9절; 「신명기」 27장 16절.

79) 『孝敬』, 「開宗明義章」, 夫孝 德之本也.

80) 「고린토인들에게 보낸 첫째 편지」 6장 19절.

81) 김경재, 『하늘과 땅의 변증법』(한신대학교출판부, 1980), 390쪽.

계 모두 형제로 묘사되며 수평적이고 평등한 관계로 나타나기도 한다. 기독교에서 부모와 자식 관계의 궁극적인 모형은 삼위일체 신관으로 드러난다.

신약성서에서 펼쳐지는 예수의 삶은 그야말로 부자유친(父子有親)의 극적 드라마와 같다. 신(성부)이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여 그의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낸다.⁸²⁾ 성육신한 예수(성자)는 모진 박해와 온갖 수난을 당하면서도 “인류를 구원하라.”는 성부의 명령에 끝까지 순종한다. 마침내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 이루었다.” 하며 죽음으로 아버지의 명령을 완수한다.⁸³⁾ 그러므로 예수의 십자가는 아버지를 성실히 공경하고 죽기까지 그 명령에 순종한 효의 극치를 상징한다. 예수는 하늘 아버지께 대한 효자이다. 예수는 그의 전 생애를 통하여 한 번도 아버지와 의 관계에서 떠난 적이 없으며, 그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부자유친, 즉 효의 완성자이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는 아버지인 신에게 효성이 지극한 독생자로서 길ियो, 진리요, 생명이다.⁸⁴⁾ 이 효도에 대한 보상으로 아버지 신은 예수를 죽음에서 일으켜 부활하게 한다. 예수의 부활은 아들과 아버지가 효도와 사랑을 통하여 하나가 되는, 곧 부자유친의 극치를 상징한다.

인간은 하늘 아버지의 지고한 사랑과 은총에 대한 감사와 보답으로서 신을 믿고, 그 뜻대로 살아야 한다. 칼 바르트는 신에 대하여 참다운 최초의 아버지라고 말한다. 그 어떤 인간 아버지도 하늘 아버지와 같이 자식의 창조자나, 주인이나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자나, 말씀을 통한 영원한 생의 근원이 될 수 없다고 말한다.⁸⁵⁾

VI. 맺음말

이제 우리나라도 다른 선진국들처럼 고령화 사회에 들어섰다. 이런 고령화 사회는 인간의 장수함을 의미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노인

82) 「요한의 복음서」 3장 16절.

83) 「요한의 복음서」 19장 30절.

84) 「요한의 복음서」 14장 6절.

85) Karl Barth, “Die Kirchliche Dogmatik, III/4”, *Die Lehre von der Veröhnung* (Zollikon-Zürich, 1951), p. 274를 윤성범, 『효란 무엇인가』(삼일서적, 1994), 44쪽에서 재인용.

들의 불건강, 무소득, 홀로됨, 무료함, 방치됨의 문제가 늘어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사회는 이를 예방하여 노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경제적 대책을 실시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직장을 떠나는 나이가 점차 낮아지고 있다. 55세 전후의 조기 은퇴자가 늘어나는 추세로 보아, 이들은 퇴직 후 20년 이상의 긴 '유휴' 기간을 살아가야 한다. 노년층이 어떻게 살아갈지 매우 불투명하고 불안한 상태다. 일거리, 경제형편, 여가활용과 같은 갖가지 문제에 얽혀 노년층은 매우 복잡한 사회 문제를 낳고 있다.

기독교는 노인과 노화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노인을 존중해야 함을 강조한다. 기독교의 효는 예수를 모범으로 하여 신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하나의 과제로 이루어가야 하는 것으로 본다.

효의 기독교윤리적 의미는, 내 부모를 혹은 내 부모만을 잘 모셔야 한다는 가족주의적인 효를 넘어선다. 이는 이미 심각성을 더해가는 노인의 인권침해와 노인의 자존감 저하의 문제를 전통적인 사적 부양인 효로서는 답을 찾기 매우 어려운 현실임을 감안할 때, 중요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그러므로 현대 사회의 변화에 맞게 효 의식도 변화시켜나가야 한다. 즉, 현대 사회의 변화에 맞게 가족구성원들의 관계성도 신의 사랑 안에서 수직적 가부장제에서 벗어나 평등주의, 상호주의에 기초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인권의 평등 측면에서 전통적인 고부간의 갈등을 해소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노인 부양의 책임을 여성들에게 떠넘기는 불평등 병폐도 재고해야 한다. 효는 사적 부양의 가족의 영역을 넘어서는 사회적 효 의식에 따른 공적 부양의 사회윤리적 이념을 실현해나가야 한다. 이러한 예로 노인을 위한 국가복지급여와 같은 것을 제공해야 한다. 이는 부모세대의 희생과 노력에 대한 사회적 보답이다. 또한 세대 사이의 화합과 연대성을 이루어가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공동번역 성서』. 서울: 대한성서공회, 1977.
- 『孝敬』.
- 김경재, 『하늘과 땅의 변증법』. 서울: 한신대학교출판부, 1980.
- 김성은, 「노년층의 사회 재통합을 위한 교회 노인교육」. 한국기독교교육학회 편, 『21세기 기독교교육의 과제와 전망』.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7.
- 김태현·김동배·김미혜·이영진·김예순, 「노년기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연구(II)」. 『한국노년학』, 19-1, 1999.
- 김형민, 「후버의 신학적 인권론」, 손규태 교수 정년퇴임 기념논문집 발간위원회 엮음, 『공공성의 윤리와 평화』.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5.
- 김형수, 「노인과 자살」. 『노인복지연구』 겨울호, 2000.
- 문희석 역, 『구약성서의 인간학』. 서울: 분도출판사, 1976. Wolff H. W, *Anthropologie des Alten Testaments*.
- 박원기, 『신학윤리와 사회과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 서화정, 「노인자살예방을 위한 사회사업 개입전략」.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논문, 2005.
- 소기천, 「성경이 말하는 아름다운 노년」. 『교육목회』 제20호, 2004년 봄호.
- 윤성범, 『효란 무엇인가』. 서울: 삼일서적, 1994.
- 이기양, 「노인의 긍정적 이미지와 노인신학의 발전방향」. 『신앙과 학문』 통권 24, 7권 2호, 기독교학문연구회, 2002.
- 이효범, 『새로운 효』. 대전: 공주대학교출판부, 2004.
- 장대숙, 『노인학의 이론과 적용』.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8.
- 제자원 편, 『창세기, 그랜드 종합주석 1』.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91.
- 주선에, 「교회노인 교육과정」.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교육부 편, 『한국교회와 노인목회』.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5.
- 최광현, 「노년기 갈등에 대한 체계론적 접근」, 『성령과 신학』, 22권. 한세대학교 영산신학연구소, 2006.
- 편집위원회 편, 『윤성범 전집 3: 효와 종교』(서울: 감신, 1998).
- 황경식, 「충효사상의 현대적 의미: 효도의 의무와 그 정당근거」. 『철학사상』 6월 12호,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01.
- Berger Peter, *The Sacred Canopy, Garden City*. New York: Doubleday, 1967.
- Browning D. S, *Preface to a Practical Theology of Aging*. New York: Human Sciences Press, 1975.

- Cox Harvey, *The Secular City: Secularization and Urbanization in Theological Perspective*. New York: The Macmillan Co., 1965.
- Durkheim Emile, *Suicide: A sociological study*. Glencoe, IL: Free Press, 1975.
- Harris, J. G, "Old Age", *The Anchor Bible Dictionary*, vol. 5. New York: Doubleday, 1992.
- Harwood & Jacoby, "Suicidal Behaviour among the Elderly", *International Handbook of suicide and Attempted Suicide*. edited by Hawton, Keith. John Wiley & Sons. Ltd, 2000.
- Heineken Martin J, "Christian Theology and Aging: Basic Affirmations", *W. M. Clements*, (ed.) *Ministry with the Aging*. London: The Haworth Press, 1989.
- Louis Lowy, *Social Work with the Aging*.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1979, pp. 299-301.
- Maves Paul B, "Aging, Religion, and the church", Clark Tibbets, (ed.) *Handbook of Social Gerontolog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0.
- Smith Henry P, *International Critical Commentary: Samuel*. Edinburgh: T.&T. Clack, 1969.
- 「고령화 사회, 교회 노인복지 문제없나?」, 《한국기독교공보》, 2005년 2월 5일자.
- 「'황금세대' 영향력변화 집중분석」, 《한국경제신문》, 1999년 9월 27일자.
- 「황혼자살 - 우울한 고공행진」, 《서울신문》, 2009년 1월 19일자.
- 「2050년 대한민국 국민소득 8만 달러 ... 국토연구원 '그랜드 비전 2050' 보고서」, 《국민일보》, 2009년 9월 3일자.

국 문 요 약

이 논문은 노인 인권유린의 현실을 극복하는 정신문화적 토대 놓기의 중심 주제로서, 고등종교로서 기독교가 수행할 사회적 기능에 대하여 논의를 전개한다. 이를 위해, 현대사회의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노인 인권문제의 기독교윤리적 관점의 주지로 효를 살펴보고, 효의 확장으로서 노인부양의 기독교윤리적 의미와 가치를 제시한다. 이를 위해 먼저, 고령화 사회의 현실적 장면과제로서 노인의 지위격하를 제시한다. 이러한 이해의 틀에서 노인 인권의 의미를 제시하고 이를 기독교윤리적 의미에서 노인의 존엄성을 강조한다.

이 논문을 통해, 이미 심각성을 더해가는 노인의 인권침해와 자존감 저하의 문제를 전통적인 사적 부양인 효로서 풀기에는 매우 어려운 현실에서 중요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현대 사회의 효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가족윤리로 그치지 않고, 사회와 국가로 확대되는 사회윤리적 의미를 말한다. 효를 기독교의 개념으로 말하면 '사랑의 실천(agape)'이다. 이는 신의 사랑과 돌봄이 누구에게나 미치고 있다는 인권의 보편성과 구체성에 근거한다.

투고일 2010. 6. 21.

수정일 2010. 8. 5.

게재 확정일 2010. 8. 9.

주제어(keyword) 노인인권(Elderly human rights), 노인자살(Elderly suicide), 기독교윤리(Christian Ethic), 사회적 효(Social Hyo)